

좋은벗들 소식을 많이 기다리셨지요?

내부 정비기간이어서 3월 소식을 전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번 4월 호에는 시흥, 광명, 안산에서 새터민들과 좋은 이웃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활동가들의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 광명, 시흥, 안산 활동가 이야기

글. 이정원 활동가 (시흥)

### 광명 활동가 이야기

광명 활동가는 김현숙님, 서태원님, 이휘영님입니다.

김현숙님은 평소 일하느라 바쁘지만 틈틈이 잊지 않고 3가구를 꾸준히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번 방문 때 갑자기 새터민 한 분이 연락이 닿지 않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다행히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기엔 서로 낯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방문하고 문자도 주고받다 보니 서로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김현숙님께서도 인연을 잘 이어가보겠다고 웃으십니다. 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하시는 마음 참 감사합니다.



사진. 서태원 활동가

가족봉사로 유명한 서태원님은 이번 설에 남동생 서용원님, 누님인 서방자님과 함께 새터민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4년째 암 투병 중이지만 너무나 씩씩하신 분, 일하며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듬직한 엄마, 열심히 일하던 중 다쳐서 잠시 쉬고 있는 가장, 취업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최근에 아이를 출산하고 돌을 치룬 예쁜 부부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쁘게 만나 인사를 나눈 모습 속에 서태원님과 남매 활동가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있었습니다. 광명에서 서태원님이 행사 때마다 꾸준히 이끌어 와주신 덕분에 지금의 새터민 가정들 인연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서글서글한 미소와 더불어 늘 앞장서서 도움 주시니 참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이휘영님은 몸이 좋지 않았지만 늦게라도 방문을 다녀오셨습니다. 12월에 크리스마스 방문도 잊지 않고 다녀오셨던 터라, 자주 보니 더 친숙하고 대화도 풍성했다고 하십니다. 바빠서 못 뵈는 분은 따뜻한 문자로, 홀로 외로운 분은 보다 밝아진 얼굴로 뵈고 오신 이야기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 안산 활동가 이야기

안산 활동가는 박용숙님, 정희숙님입니다.

박용숙님은 꾸준히 안산에서 새터민 4가구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담당가정을 방문했을 때, 새터민분들이 기꺼이 우리를 맞이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내는 모습들을 보며 그동안 박용숙님께서 마음써주신 흔적을 보았습니다.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며 집에 있는 과일을 잔뜩 싸주시는 분, 야무지게 아이 키우며 취업 공부하는 엄마, 둘째 출산을 앞둔 새로운 인연, 늦게까지 일하느라 아쉽게 못 뵈는 분까지 모두 각자 한국에서 잘 살아가고 계심이 정겹고 감사했습니다. 늘 뭐라도 하나 더 챙겨가려는 박용숙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함께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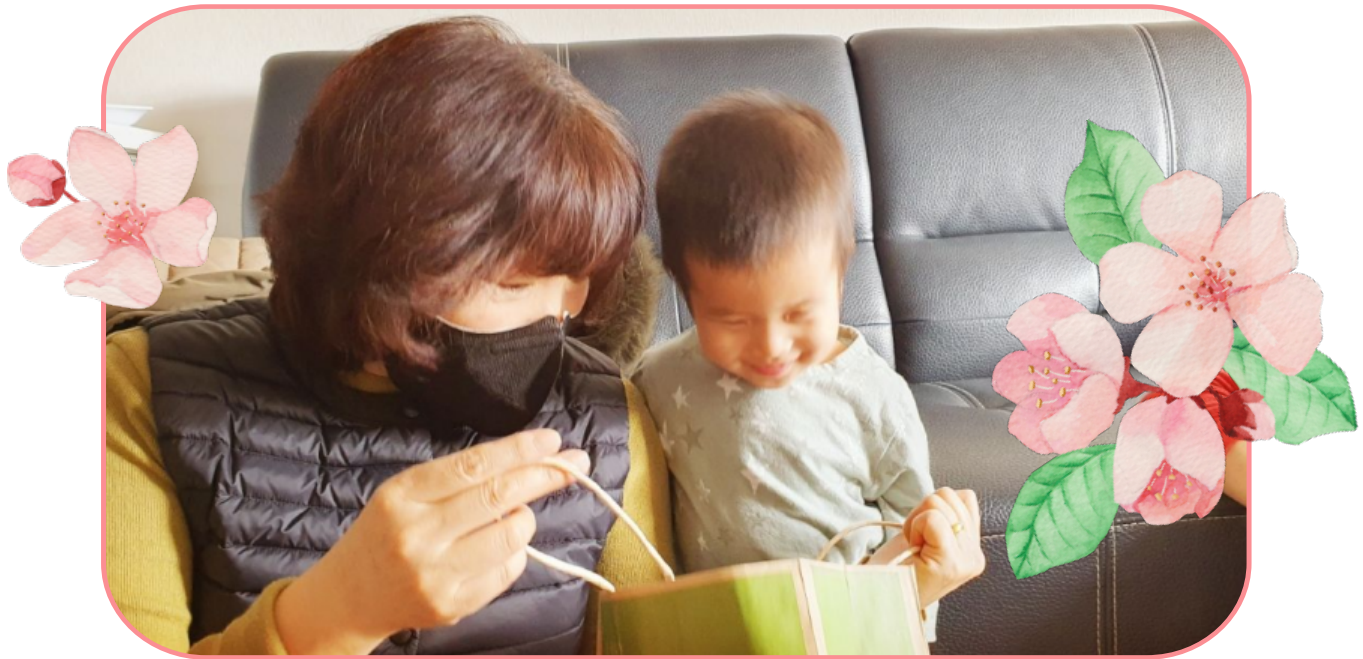


사진. 정희숙 활동가

정희숙님과 함께 봉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화성에 사시는 정희숙님은 사는 지역이 교통이 불편하고 운전도 익숙치 않으셔서 만날 때마다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그래도 늘 씩씩하게 웃으며 분유지원도 잘 챙겨주시고 마음 담아 활동해오고 계십니다. 방문하시는 새터민이 말수가 적은 편이라 아직은 서먹함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아들 셋 키우는 마음 헤아리며 늘 챙기려는 정희숙님 마음은 가족처럼 따뜻합니다.

## 시흥 활동가 이야기

시흥의 활동가는 김병선님, 김이자님, 신미순님, 김명신님, 이명은님, 이정원님, 이태자님, 신기일님, 박지현님입니다.

김병선님은 큰언니 김이자님, 둘째 언니 김명임님과 함께 봉사하십니다. 자매 세 분 모두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가슴에 진하게 와 닿습니다. 특히 김장행사를 치룰 때면 세 분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나이 지긋한 자매 분들이 함께 봉사하고 마음 담아 방문하는 모습에 새터민 분들도 늘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병선님께서 JTS다문화센터 차량봉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의 인연으로 고려인 한 가정을 방문한 이후 새터민 방문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지원품을 전하고 웃으며 감사인사 나누는 정도지만 작은 지원이라도 해드리며 힘을 전함이 느껴져 덕분에 함께 뿌듯한 마음입니다.



사진. 박용숙, 김병선 활동가

신미순님은 이보금님과 함께 이번 설명절 방문을 다녀오셨습니다. 봉사자들과 새터민이 함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함께한 사진을 보니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다녀온 한 가정의 새터민 분께서, 함경도 떡을 만들어 과일과 함께 챙겨주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잘 먹고 잘 입으니 늘 설날이고 추석이다’ 하셨다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어려운 점, 자녀들 걱정, 여러 사는 이야기 등을 소탈하게 함께 나누고 온 글에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첫 방문을 하신 이보금님은 설레고 호기심이 이는 마음이 든다고 하시며, 알아가는 과정이니 즐기고 잘 배워가겠다고 하십니다. 늘 알아서 척, 도움 주시는 든든한 신미순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 내어주신 이보금님 참고합니다.



사진. 김명신, 신미순 활동가

김명신님도 이번 방문에 큰 아드님이 동행하여 다른 때보다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문지로 이동하는 동안 차 연수를 함께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덕분에 탈북민에 대한 젊은 청년의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화를 흥미롭게 듣고 질문도 던지며 모르던 것을 알아가는 청년의 호기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김명신님이 방문한 새터민분들 대부분 말재주가 뛰어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됩니다. 이번 만남 때도, 북한과 중국에서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 새터민으로 한국에서 일하며 사는 이야기, 몸이 안 좋아 수술하신 이야기 등 다양한 상황을 실감나게 들으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챙겨 온 김명신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명은님은 최근 업무와 가정사로 무척 바쁘셨지만, 한 가정에 8개월간 분유지원을 잊지 않고 잘 챙겨주셨습니다. 담당을 맡은 초기에는 새터민 분의 생각과 다른 문화 등을 좀 낯설어 하셨지만 이제는 다름을 인정하고 전보다는 편안해진 듯합니다.

이명은님과 함께 방문할 때마다 쑥쑥 커있는 아이를 보면 건강히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부모 입장에서 아이는 잘 먹지 않는다며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 설 방문 때도 아이와 함께 한의원에 가는 모습을 보며 헤어졌는데, 시간이 잘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진. 신미순, 이명은, 이정원 활동가

이태자님은 최근 관절이 좋지 않아 이번 명절 방문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22년까지 늘 든든히 함께 해주시는 봉사자 중의 한분이셨습니다. 특히 활동 초기, 김장행사를 진행할 때는 큰언니 노릇을 톡톡히 해주셔서 처음 진행해보는 행사였음에도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요리솜씨가 좋으셔서 활동가와 새터민이 이태자님 댁으로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새터민 분들은 따뜻한 가정식을 먹으며 고향에 온 듯 뭉클해 하셨습니다. 든든한 말언니 이태자님,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기일님은 좋은이웃되기 활동을 하고 있는 아내를 돕다보니 자연스럽게 새터민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나들이 때도, 통일축전 때도, 김장행사 때도 솔선수범하는 든든한 조력자였기에 이제는 함께하는 봉사자들끼리 얼굴도 많이 익혔습니다. 봉사를 하고나면 일을 했다는 힘듦 보다는, 뿌듯함으로 마음이 살찌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주, 저 교대로 버스 기사를 하고 있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틈틈이 도와보겠다고 마음을 내어주셨습니다. 선한 마음과 실천 늘 고맙습니다.



22년 6월 새터민 나들이 당시 함께 봉사하셨던 박지현님께서 23년 초부터 좋은 이웃되기 봉사에 다시 합류하셨습니다. 덕분에 함께 시간 맞춰 갈 수 있는 봉사자가 한 분 더 늘어 든든한 마음이었습니다. 박지현님은 국내에서 통일관련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고, 해외로 나가 16년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다 합니다. 그 끝에 좋은이웃되기 활동과 인연이 되신걸 보니,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 23년 시작하며 받은 것이 많습니다.

새로운 봉사자 분들이 오셨고, 1월에 설 방문하면서 새터민들께도 마음을 듬뿍 받았습시다. 딸아이 갖다 주라고 손수 만든 과배기와 만두를 싸주시는 손, 늘 과자를 잔뜩 들려주시는 손, 과일이라도 가져가라고 한 개 두 개 주섬주섬 싸주시는 손, 그동안 너무 받기만 했다며 일부러 선물을 준비한 손... 그 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니 동그란 얼굴들이 잘 계시나 또 궁금해집니다.

먼 북녘으로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들과 따뜻하고 좋은 활동가들 덕분에, 이번 23년 설 명절방문도 따뜻하게 잘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좋은이웃되기 활동은 인연된 새터민 분들이 계시는 한, 놓지 못할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활동가들과도 가족처럼 정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3년 봄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희망차게 맞이합니다.



사진. 광명지회 활동가

